

보 도 일 자

배 포 즉 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창립 15주년 ESG우수기업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원장 조명현)은 2017년 11월 16일(목)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5주년 ESG우수기업시상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행사는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책임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시상하는 2017년도 ESG우수기업시상식과 심포지엄을 통합 개최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함
 - 이번 행사에는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고, 유관기관 및 수상 기업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자세한 프로그램은 붙임1 참조

(제1부 시상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경영(E) 및 사회책임경영(S) 이행 노력과 지배구조(G) 개선 성과를 평가해 옴
 - 아울러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시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옴
- 올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33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19사의 직전년도(2016년) ESG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SG 우수기업 총 4사를 선정하고 시상함

표창명	기업명	시상자
대상	S-Oil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우수기업	주식회사 안랩	
우수기업	SK주식회사,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 기업별 수상사유는 붙임2 참조

(제2부 심포지엄)

□ 제2부에서는 「ESG 정책변화와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음

- 자본시장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은 범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원칙 10개 사항에 대해 상장기업이 “Comply or Explain” 방식에 의거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이를 의무공시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임
- 우리 자본시장은 지난해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도입하여 변화와 혁신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시범기였다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와 여파를 실감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심포지엄은 우리 자본시장이 맞는 변화에 대해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정책 변화와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먼저 살펴보고, 더불어 ESG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기업의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음

구분	주제	사회 및 발표	
제1세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	사회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1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
		발표 2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발표 3	김임근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제2세션	ESG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사회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1	김홍석 (메리츠자산운용 상무)
		발표 2	박태진 (SK주식회사 상무)
		발표 3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각 발표 요약은 붙임3 참조

※ 담당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분석1팀 김진성 팀장 (02-6951-3701, jskim@cgs.or.kr)
장윤제 연구원 (02-6951-3702, jyj@cgs.or.kr)
임현경 연구원 (02-6951-3703, hkim@cgs.or.kr)

[붙임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창립 15주년 ESG우수기업시상식 및 심포지엄
- ESG 정책변화와 기업의 역할 모색 -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16일(목) 14:00-17:45
- 장소 :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본관 1층)
- 주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후원 : 한국거래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진행		
14:00~14:05	개회(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개회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14:10~14:15	축사	한국거래소 이사장		
제1부 2017 ESG우수기업시상식				
		수상기업		시상자
14:20~15:00	시상 및 사진촬영	대상	S-OIL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우수기업	주식회사 안랩	
		우수기업	SK주식회사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제2부 201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심포지엄				
15:10~16:25	제1세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		
		사회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1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	
		발표 2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발표 3	김임근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Q&A		
16:30~17:45	제2세션	ESG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사회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1	김홍석 메리츠자산운용 상무	
		발표 2	박태진 SK주식회사 상무	
		발표 3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Q&A		

2017 ESG 우수기업 수상사유

- **(대상) S-Oil 주식회사**는 ESG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공고히 갖추고 있으며, ESG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고 상장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어, 2017년 ESG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정됨
 - 환경경영에 있어 환경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업체의 친환경 경영활동도 검토하는 등 에너지업체로서의 환경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 사회책임경영의 경우, IT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한 준법경영 기업문화를 실현하고 있음
 - 경영진이 이사회와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 이사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등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임
- **(최우수기업) 주식회사 안랩**은 모범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줌
 - "판교 CSR 얼라이언스", 동남아 지역 개발도상국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갖추고 시행함
 - 사외이사들의 경우 독립성에 더해 회사 경영 및 업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 **(우수기업) SK주식회사**는 사업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의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이사회가 ESG 개선을 주도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음
 -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안건 및 경영현안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체계적이고 다양한 인력개발 및 인재역량강화, 가족친화경영제도 적극 지원으로 이직률 최소화를 실현하며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함
- **(우수기업)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는 한가족협의회 및 조직문화파트 등을 통한 근로자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우수한 사회책임 활동 개선을 보여줌
 - 환경경영에 있어 용수·에너지·원자재·폐기물 절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우수한 청정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화된 환경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환경성과 관리를 도모함

< 제1세션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 >

제1발표자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

송민경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요와 관련 해외동향을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와 해외동향)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의 세부 원칙과 안내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채택으로 총 20개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주권 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 개정을 통해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

영국 상장회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상장회사의 58%가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투자자의 관여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미국도 PwC의 설문조사를 통해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투자자(주주)와의 대화가 회사에도 유용하다는 점, 주주와의 능동적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핵심주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발표자 :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영권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기관투자자인 하이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서, 일명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기관투자자의 역할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한국도 현재 기관투자자 10개사가 참여중이고, 기관투자자 48개사, 보험사 2개사, 증권사 3개사, 은행 1개사, 자문사 1개사가 참여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오너 부재에 의한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강한 오너십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부지침이 구체적이라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이 있다.

(한국형 스톱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전망)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입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자사주를 매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과 주식시장의 구조가 유사한 일본 또한 코드 도입 이후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도 확대된 바 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변화)

기관투자자는 코드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참여(Engagement) 활동을 통해 기업과 소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 및 일본의 설문조사 사례를 볼 때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의사결정 시 ESG분석을 중시하고 사회책임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대응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의결권행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심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 기업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이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 공개와 미공개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 등으로 해결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IR활동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와의 상호작용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발표자 : 김임근 신한금융지주 상무

김임근 상무는 신한금융지주의 CRO(최고위험관리책임자)로서, 스톱어드십코드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한금융그룹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기회와 위험)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개선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스톱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우량기업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증가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코드 도입 이후 주주친화정책을 시행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참여(Engagement)는 기업의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투자자와 자문기관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전사적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위험이 아닌 개선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1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신한금융그룹은 현재 IR팀에서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코드 도입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심사항 다변화에 따라 CEO, 전

락/재무 리스크 관리팀, IR팀, ESG 관련부서 등 전 그룹이 유기적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ESG투자 관심 고조에 따른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신설 등 선제적 대응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할 것이다.

(신한금융그룹의 대응 2 : 경영관여 대응)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주주의 관여(Engagement)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세분화하고 체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앞서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중장기 경영전략인 2020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의 재무지향점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주주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제2세션 : ESG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

제1발표자 : 김홍석 메리츠자산운용 상무

메리츠코리아펀드 대표매니저인 김홍석 상무는 본 심포지엄과 연관성이 큰 메리츠코리아인게이지먼트 사모펀드에 운용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SRI펀드의 투자전략과 이에 대응되는 ESG 정보공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게이지먼트 투자전략)

김상무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의 SRI펀드는 크게 네 가지 운용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둘째,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않고 상향식 종목 발굴에 근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셋째, 단기 매매를 지양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기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투자한다. 이는 곧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전략으로 요약된다.

(SRI펀드의 ESG요소 활용사례)

SRI펀드 운용 초기에 ESG 평가점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률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투자가치 등을 기본으로 하고, ESG를 기업의 장기지속성의 리스크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필터링을 실시하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여 투자수익률의 개선을 이루었다.

(SRI펀드 운용의 과제)

일명 ‘지속가능 종목군’에 있어 ESG 관련 정보의 부족과 리스크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 (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사례) 더불어 SRI가 아닌 다른 포트폴리오와 차별성이 적다는 점이 또다른 과제이다.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 전략으로의 전환)

과거 다소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주의에서 벗어나 기업방문미팅, 컨설팅 보고서 제공 등 경영진 및 대주주와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ESG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소액주주권리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 결여, 회사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예측 불허 등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될 것이다.

제2발표자 : 박태진 SK주식회사 상무

박태진 상무는 ESG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동시에 요구받기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정보공개 경험과 향후 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SK 경영철학과 지속가능경영)

SK는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는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6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고객중심경영, 인재경영, 동반성장, 지역사회공헌, 환경경영, 윤리경영이 그것이다.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소개)

SK주식회사는 ESG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계획 수립부터 보고서 검증 및 발간에 이르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GRI G4 Comprehensive를 채택하여 GRI 공개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ESG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ESG 정보공개 추진 전략 및 방안)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정보 요구에 대응하고 ESG 정보공개표준(standard)을 제시하고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및 환경의 가치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제3발표자 :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수현 교수는 최근의 ESG 정보 수요요인과 정보 수요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ESG 정보와 기업가치의 상관성, ESG 정보 수요증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ESG 정보 수요요인과 수요자)

최근의 ESG 정보 수요요인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시행, 기업지배구조 공시(보고서) 정책의 확대 시행, 재무적 성과중심의 투자 각성과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ESG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자로는 투자자, 투자대상기업, 근로자 및 지역공동체, 감독기관 및 거래소,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 등이 있다.

(ESG 정보와 기업가치간의 관련성)

ESG 정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가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 및 펀드운용자의 기업가치 평가, 사업전략의 기회 및 위험 요인 파악,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의 대화 및 인게이지먼트 활용 등이다.

(ESG 정보 수요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과제)

우선 기업은 ESG 요소 및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ESG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ESG 정보 제공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통일적인 컨셉과 입장을 제시하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SG 요소와 기업 장래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대화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ESG 위험 경감 노력과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향후 ESG 정보의 통합 공시체제 구축, 통합공시 방법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통합공시의 신뢰성 보증 방안 강구, 기업가치와의 상관성 경로 구체화 제시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